

“태풍 순연... 전화위복 만들겠습니다”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챔피언스필드 지붕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라운드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훈련은 진행됐다. 사진은 관중석 복도에서 몸을 풀고 있는 프로야구 KIA 선수단.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챔피언스필드 지붕 파손돼 삼성전 취소 실내 연습장서 배팅훈련...관중석서 러닝훈련 광주시, 1차 보수...9·10일 롯데전 정상 개최

3일 챔피언스필드에 그라운드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챔피언스필드의 지붕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안전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전날 광주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소용돌이 바람이 외야에서 내야 쪽으로 불어 들어오면서 1m·3.6m 크기의 지붕 패널 16개가 파손됐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현대 건설이 임시로 패널을 끈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날 오후 6시 열릴 예정이던 KIA와 삼성의 경기는 취소됐다. 2일

우천으로 경기를 하지 못하면서 새로 편성됐던 월요일(4일) 경기도 취소됐다.

'그라운드 출입 금지령'은 내려졌지만 훈련은 진행됐다.

실내 연습장에서 스트레칭과 배팅훈련을 진행한 선수단은 관중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챔피언스필드의 부실한 지붕이 문제가 됐지만 국내 유일의 콘코스는 위력을 발휘했다. 1루에서 3루까지 개방형으로 이어진 3층 관중석 복도가 선수들의 러닝장이 된 것이다.

야수진과 투수진은 각각 1루와 3루 쪽에 자리를 잡고 넓은 복도를 오가면서 몸을 풀었

다. 삼성 선수들도 콘코스를 뛰어다니며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훈련이 진행되기 전 선수들은 잠시 관중석이 되기도 했다. 처음 관중석으로 올라온 양팀 선수들은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는 등 팬의 시선으로 그라운드를 내려다 보았다.

"경기장이 좋다"며 한마디씩을 하던 선수들, 외야수 이대형은 "여기서 야구 보고 싶다"며 웃기도 했다.

태풍에 챔피언스필드의 약점과 장점이 동시에 노출된 하루였다.

한편 1차 보강 작업을 한 광주시와 현대건설은 안전 확인작업에 이어 문제가 된 패널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오는 9·10일 예정된 롯데와의 홈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패널을 안전한 재질로 바꾸는 등 논의 작업을 거쳐 재시공을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종국 코치, 삼성 채태인에 “살살 좀 해”

덕아웃 톡톡

▲“감독님 노게임이요!”

지붕 패널 파손 등에 따른 안전 사고 문제로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삼성의 경기가 취소됐던 3일, KIA 선수들은 그라운드 대신 콘코스를 뛰면서 훈련을 진행했다. KIA의 훈련이 끝나갈 때쯤 삼성 선수단이 원정 덕아웃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눈에 경기장이 내려다보이는 콘코스 구조, 서재용의 시야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 서재용은 큰 목소리로 “감독님 노게임이요. 경기 안 해요!”라고 소리쳤다. 서재용의 시선 끝에 있던 사람은 삼성 류중일 감독, 류 감독은 손을 흔들며 “OK 사인”을 보냈다.

▲“형은 오징어다.”

콘코스에서 훈련을 진행한 KIA 선수단. 처음 관중석에 올라온 선수들에게는 신기한 풍경이었다. 처음

경기장을 찾은 팬처럼 관중석에 내려가서 경기장을 살펴보고 이곳저곳 둘러보기도 하면서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 “그라운드가 바로 다 보인다”며 신기해 한 이들에게는 경기장 매점도 눈에 띄는 장소였다. “매점도 바로 옆에 있다. 뭐 사먹을까?”라며 농담을 주고 받던 선수들, 김병현의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다. “형은 오징어다.”

▲“몸도 안 좋다면서 살살해.”

KIA의 훈련이 끝날 때쯤 삼성 선수단이 콘코스 훈련을 위해 3층 관중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양팀 선수들의 ‘진목의 시간’이 펼쳐졌다. 서로 인사를 주고 받던 시간. 김종국 코치가 채태인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적으로서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태인아 자꾸 슬라이딩하고 그러지 마. 몸도 안 좋다면서 살살해야지.” 채태인의 호수비에 몇 차례 눈물을 흘렸던 KIA였다. /김여울기자 wool@



아! 13승

류현진, 컵스전 7회말 동점 허용...13승 실패

한·일 대결, 와다에 우세...팀은 연장 끝 5-2 승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13승 사냥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시즌 21번째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9피안타에 볼넷 1개를 내주고 2실점(2자책)했다. 삼진은 6개를 소화했다.

류현진은 2-2로 맞선 7회말 다저스의 공격 때 대타 야시엘 푸이그와 교체됐고, 다저스가 7회말 득점에 실패하면서 류현진의 개인 4연승과 시즌 13승 도전은 물거품이 됐다.

류현진은 비록 승리는 따내지 못했지만 일본인 투수 와다 쓰요시(33)와의 한·일 선발투수 자존심 대결에서 우세를 거뒀다. 류현진이 7회까지 버틴 반면 일본인 투수 와다 쓰요시는 5.2이닝 동안 6피안타(1피홈런) 2볼넷 6탈삼진 2실점하고, 6회말 2사 3루에서 공을 카를로스 빌라누에바에게 넘겨주고 내려왔다.

류현진은 이날 총 108개(스트라이크 73개)의 공을 던졌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44에서 3.39로 떨어뜨렸다.

4회를 제외한 매 이닝 고전했다. 1회초 1사 후 크리스 코글란에게 오른쪽 담장을 직접 맞는 2루타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류현진은 2사 후 4번 스타린 카스트로에게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맞고 선취점을 허용했다.

류현진이 4회초를 이날 경기 처음으로 삼자범퇴로 돌려세우자 잠잠하던 타선도 화답했다. 4회말 맷 켈프가 무사 1루에서 와다의 슬라이더를 건어올려 왼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 홈런으로 연결했다.

6회초에도 선두타자 리조에게 2루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내준 뒤 카스트로에게 2루수 앞 땅볼을 유도해 시즌 11번째 병살타로 연결했다. 7회초 1사 후 주니어 레이크에게 1루수 방면 기습번트 안타를 허용한 류현진은 알칸타라에게 우중간 담장을 직접 맞는 2루타를 얻어맞고 어렵게 동점을 허용했다.

/연합뉴스